

〈문제 1〉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제시문 (가)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별개의 문제이며 각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다. 또한 제시문은 로마시대 노예제도에 대한 스토라 철학자 세네카의 이견을 예로 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타고난 대로 살며 주어진 직분을 행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시문이 운명이라고 지칭한 로마의 노예제도는 운명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제시문은 사회제도를 혁파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보았다.

➔ 여기까진 너무 좋은데,

제시문 (나)는 **허생과 그 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허생과 사회적 관습, 윤리적 규범에 얽매이는 허생의 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두 사람의 행복도가 지나치게 불평등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가 행복을 위해서는 사회제도에 순응해야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행복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제도를 타파할 수 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시문 (나)는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맞서 도전하는 개인의 능동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 그래서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문제이면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데요. 분명히 제시문에서 논지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마라톤 42.195킬로를 가야 되는데 40킬로에서 멈춘 격이라니까요. 상호작용하면 그러면 (가)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별개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어떤 한 개인이 행복하면 다른 개인은 불행하다 라는 **예화 일반화**의 결론이 나와야 논지를 비교하라 라는 문제의 취지에 맞죠.

제시문 (다)는 공리주의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추구는 공동체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협력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복 또한 추구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전체의 이익에 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수의 이익은 무시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제시문 (나)에서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허생의 처는 계속 규범에 얽매어 사는 것이 합리화 될 수 있다.(911자)

➔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일단 문장이 너무웃겨가지고 나는 문장력은 원래 지적 안하는데 진짜 너무웃겨가지고 내가 쓸게요 “동시에 자신의 행복 또한 추구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국말이에요 일본어예요? 아무리 연대가 문장력 안본다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독해를 다 맞게 해놓고서도 이렇게밖에 못 써요? “개인이 행복해지면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복 또한 추구된다” 라고 그냥 짧게 써버리고 “따라서 (나)에서 한 개인이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과 대비된다” 라고 간단명료하게 끝낼 수 없었냐는 거예요. 짜증나서 저 문장에다가는 빨간 색 칠 할거예요.

〈문제 2〉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제시문 (나)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허생과 사회적 규범에 얽매어 고통받는 허생의 처를 예로 들면서 개인 간의 행복도가 지나치게 차이 나는 상황을 지적한다. 즉, 어느 정도의 행복도가 차이 나는 상황은 용인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행복도와 다른 사람의 행복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그 차이가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을 만큼 크다면 그 사회는 이상적이지 않는 사회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개인간의 행복도 차이가 기형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불행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굵게 표시한 부분 왜 1번에선 안췄냐구요. 2번에서 써봤자 1번으로 옮겨져서 채점되지 않습니다.

제시문 (라)를 보면 평균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개인 간의 행복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c 국가일 것이다. 왜냐하면 c 국가는 비록 행복도는 b 국가보다 낮을지라도 각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시문 (다)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가 얼마나 평등한지 보다는 각 개인의 행복도의 총합, 즉 공동체가 느끼는 행복을 중요시한다. 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 곧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 간의 불평등이 생길 수 도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시문 (다)가 이상적이라고 선택할 국가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는 비슷하지만 총합은 작은 c 국가보다는 비록 개인 간의 행복도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행복도의 총합이 큰 b 국가일 것이다. 또한 b 국가 국민의 행복도는 c 국가 국민의 행복도와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b 국가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차이는 허용가능한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49자)

➔ 일단 전부 정답. 1번의 독해 자체는 다 똑바로 했으므로 2번도 틀릴 수가 없게 되요.

